

떠났으면 떠났다고 말을 했을 거예요. 아! 비르지니를 두고 떠돌던 소문들이 다 근거 있는 말들이었다고밖에 할 수 없어요! 그 이모할머니는 그녀를 명문가 귀족과 결혼시킨 거였어요. 돈에 대한 사랑이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녀를 타락시킨 거였어요. 여자들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다더니, 그만 이 책들에 나오는 정조는 그저 소설의 소재일 뿐인 거예요. 비르지니가 절개가 굳은 사람이었다면, 그녀는 자기 어머니와 나를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그녀를 생각하며 세월을 지나보내는 동안, 그녀는 저를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상심에 빠지는 동안, 그녀는 인생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생각이 저를 절망케 합니다. 모든 일거리가 저를 화나게 만들고 있어요. 가족 모두가 지긋지긋합니다. 인도에 전쟁이라도 선포되면 좋았을 겁니다! 거기 가서 죽어버리게요.”

“이보게,”

내가 답했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용기는 단지 한 순간의 께기에 지나지 않는다네. 그건 흔히 사람들의 근거 없는 박수와 환호에 들떠서 생기는 거야. 그보다도 훨씬 희귀하고 훨씬 절실한 것이 있네.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증인도 없이, 칭찬도 없이 삶의 역경을 이겨내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 있어. 바로 인내일세. 인내는 타인의 사상이나 우리 정욕의 충동이 아니라, 하느님의 의지에 본바탕을 두고 있다네.